

사랑채 누마루와 사랑마당 및 외부차경공간의 시각적 관계 - 영남지방 조선시대 15~16세기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

김영현¹, 신문기^{2*}
¹호서대학교 건축학과

Visual relationships between Sarangche Numaru, Sarang Madang and Outer space

Young-Hyun Kim¹ and Moon-Ki Shin^{2*}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15~16세기에 형성된 영남지방 상류주택을 대상으로 입지별 상류주택의 사랑채 내부 공간, 누마루의 기능, 규모, 유형 등을 통해 사랑채 누마루의 입지별 특성을 비교하고 또한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와 사랑마당 및 외부차경과의 시각적 관계를 분석하여 조선 초기 사랑채 누마루의 입지별 내·외부 공간 특색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구릉지형의 경우 좌향과 상관없이 사랑마당과 접하는 누마루의 면이 단변을 이루고, 평지형의 경우 구릉지형과 달리 사랑마당과 접하는 누마루 면이 장변을 이루었다. 둘째, 구릉지형은 사랑마당이 조망의 대상이 아니며 주변 산세를 조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평지형은 사랑마당이 조망의 대상이면서 구릉지형과 달리 사랑마당 안에 내부정원을 형성하고 개방된 입면을 형성한다. 셋째, 구릉지형은 조산을 외부차경으로 활용하며 평지형은 사랑마당을 조망대상으로 활용하고 사랑마당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내부정원을 형성하는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 of the inner and outer spacing of Sarangche Numaru according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 conditions during its construction in 15-16thcentury. The results showed; first, for hill-type, the side of the Numaru that is in contact with the Sarang Madang makes a short side of Sarangche Numaru regardless of the Orientation and for flatland-type, the side of the Numaru in contact with the Sarang Madang makes a long side of Sarangche Numaru. Secondly, for hill-type, Sarang Madang is not focused as the main view, instead it supports the view of the mountains that are around however, for flatland-type, Sarang Madang is focused as the main view therefore, an inner garden is formed inside Sarang Madang. Lastly, for hill-type, Cho Shan is used as an appropriative landscape while for flatland-type, Sarang Madang is used as the main view and an inner garden is formed because of the diversification of Sarang Madang's function.

Key Words : Appropriative landscape, Sarang Madang, Sarangche Numaru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랑채 누마루는 조선시대 종법질서의 확립과 성리학

적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랑채에 부설된 공간으로서, 가장의 권위와 위계를 표현하고, 자연을 실내로 유입하는 전이공간으로 상류주택에서 내·외부 공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Moon-Ki Shin (Hoseo University)

Tel: +82-41-540-5782 email: mkshin@hoseo.edu

Received September 10, 2012 Revised (1st October 25, 2012, 2nd November 27, 2012) Accepted December 6, 2012

사랑채 누마루 관련 선행연구들은 시대사상 및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채 사랑채 누마루 평면유형 연구를 주로 진행했으며, 평면유형 분석은 누마루의 변천과정[1] 및 지역적 특색[2]을 위주로 되어졌다. 그리고 사랑채 누마루는 내·외부공간이 관계 맺는 중요한 전이공간이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랑마당 및 외부차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소홀한 채 평면 및 구조체의 특색만 강조해왔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랑채 누마루의 공간적 특색을 파악하지 않고 단지 시대사상이나 구조체의 지역적 특색만으로 누마루를 제대로 고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평면특색뿐 아니라 내·외부공간의 물리적·시각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영남지방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사랑채 누마루를 산중턱 또는 구릉지 부근에 위치한 ‘구릉지형’과 산 밑의 주거지에 위치하거나 평야 지대에 위치한 ‘평지형’으로 분류하여, 위치한 입지에 따라 사랑마당 및 외부차경 도입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입지별로 사랑채 누마루의 평면유형을 비교분석하고, 이어서 사랑채 누마루의 평면에 따른 사랑마당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채 누마루와 외부차경과의 시각적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의 내·외부 공간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유사한 시기에 폭넓은 사례가 다양한 입지에 분포되어있고 또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건립시기와 목적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남지역의 조선시대 상류주택 중에서 누마루가 부속된 사랑채를 가지고 있는 주택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표1과 같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15~16세기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건물 10채(구릉지 4채, 평지 6채)를 분석대상으로 조선 초기에 형성된 사랑채 누마루의 부설과정과 입지에 따른 누마루의 내·외부 공간의 구성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및 현장탐문조사를 취하였다. 문헌은 기존연구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현장조사는 주택별로 3차례 진행하여 누마루를 실측하고 누마루에서 보이는 외부차경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장탐문조사는 건축주 또는 주택사용자를 대상으로 누마루의 연혁, 사용실태, 변경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 Case Housings

위치	가옥명	문화재	건립연대
구릉지	서백당	중요민속자료 제23호	1450년대
	관가정	보물 제442호	1514년대
	무침당	보물 제411호	1540년대
	묵와고가	중요민속자료 제206호	1568년대
평지	경류정종택	경북민속문화재 제72호	1500년대
	안동 임청각	보물 182호	1500년대
	윤경남 선생가옥	경남유형문화재 제326호	1540년대
	화기리인동 장씨종택	경북민속자료 제98호	1550년대
	안동 예안이씨종가	보물 553호	1550년대
	예천권씨 초간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01호	1590년대

2. 입지별 누마루의 평면특성

2.1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의 평면유형

일반적으로 사랑채는 온돌방, 대청, 누마루, 뒷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에 누마루가 부설된 형태에 따라 정면돌출형, 측면돌출형, 부속형, 대청형으로 Table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3]

[Table 2] Sarangchae plan types according to the attached Numaru form

(대청: □ 누마루: ■ 뒷마루: ▨ 방: ▩)

명칭	내용	유형	
		대청 0	대청 X
정면돌출 누마루형	좌향을 기준으로 사랑채 진입부분 정면돌출부에 누마루를 두고 가로방향으로 실을 배열한 유형		
측면돌출 누마루형	좌향을 기준으로 사랑채 진입부분 측면부에 누마루를 두고 실을 병렬한 유형		
부속형 누마루형	방과 방사이 모서리에 형성되어 독립되지 않고 칸으로 부속된 유형		
대청형 누마루형	측면돌출형과 유사하며 누마루가 낮고 방보다 마루공간이 크게 형성된 유형		

표3의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의 유형을 보면 시기적으로 16세기 이전에는 부속형과 대청형이 정면돌출형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이는 16세기 초기에는 사랑채가 확장되기 이전으로 누마루가 부설되는 모습이 서백당과 같이 방과 방 사이에 부속된 형태로 나타나며 무침당, 윤경남선생가옥과 같이 정면돌출형이더라도 방과 바로 접합한 형태로 나타나거나 안동임청각, 예천권씨초간종택과 같이 대청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누마루의 접합기술 부족하여 부설이 용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Numaru types of case Housing

위치	가옥명	유형
구릉지	서백당	부속형 누마루형
	무침당	정면돌출 누마루형
	관가정	측면돌출 누마루형
	목와고가	정면돌출 누마루형
평지	경류정종택	부속형 누마루형
	안동 임청각	대청형 누마루형
	화기리인동장씨종택	측면돌출 누마루형
	안동예안이씨종가	부속형 누마루형
	윤경남선생가옥	정면돌출 누마루형
	예천권씨초간종택	대청형 누마루형

2.2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의 기능 및 규모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 기능을 보면 표4와 같이 구릉지형의 경우 사랑채 누마루는 접객이 위주이며 서백당의 경우 의례를 겸하고 목와고가는 의례와 생활을 겸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지형의 경우 사랑채 누마루는 생활을 주로 하며 접객 기능은 별도 건립된 대청이나 별도형 누정이 분담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의 규모를 보면 구릉지형의 경우 부속형인 서백당, 측면돌출형인 관가정의 경우 8㎡ 정도로 형성되고 정면돌출형인 무침당, 목와고가의 경우 약 15㎡ 이상 크기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형성된다. 평지형의 경우 부속형인 경류정종택은 예안이씨종가와 달리 10㎡로 형성되고 정면돌출형인 윤경남선생가옥은 15㎡로 구릉지형과 비슷한 규모로 형성되며 대청형인 안동임청각과 예천권씨초간종택의 경우는 40㎡이상이다. 평균적으로 누마루 면적을 보면 구릉지형이 평지형보다 작은 편이며, 유형 중에서는 대청형 누마루공간이 다른 형과 비교하여 가장 크다. 또한 사랑채 누마루가 생활과 복합적인 활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누마루 면적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Table 4] Features and scales of Sarangchae Numaru

위치	가옥명	누마루 기능	누마루 면적 (㎡)	대청 유/무	별동형 누정의 유/무
구릉지	서백당	의례, 접객	8.43	무	무
	무침당	접객	15.57	무	무
	관가정	접객	8.65	무	무
	목와고가	의례, 접객, 생활	21.84	유	무
평지	경류정종택	의례, 생활	10.1	무	유
	안동임청각	의례, 생활	40.3	무	유
	화기리인동장씨종택	의례, 생활	18.94	무	무
	안동예안이씨종가	의례, 생활	34.75	무	유
	윤경남선생가옥	생활	15.02	유	유
	예천권씨초간종택	의례, 생활, 접객	43.83	무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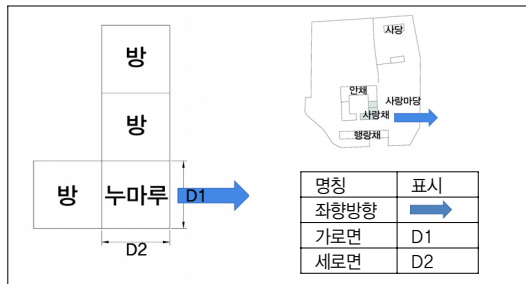
3.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와 사랑마당 및 외부차경의 관계

사랑채 누마루와 마당과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16세기는 유교사상이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안채 영역인 안마당과 뒷마당의 경우 사랑채 누마루와 시선이 점차 차단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사랑마당의 경우 사랑채 정면이나 측면에 위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차경을 대신하면서 누마루와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누마루 평면형태 구성에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 이에 사랑채 누마루와 사랑마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각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3.1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 바닥 비례와 사랑마당의 관계

현장조사를 통해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 바닥 비례 및 좌향 방향을 파악하였다. 표 5와 같이 누마루 바닥의 가로와 세로는 좌향과 직교하는 면을 가로면이라고 하고 나란한 방향의 면을 세로면이라 정의한다. 이를 통해 사랑채 누마루가 사랑마당에 접하는 바닥면의 크기 비례에 따른 입지별 차이점 유무를 알아보고자 한다.

[Table 5] Schematic drawing for proportion of Sarangchae Numaru's floor



3.1.1 구릉지형

사랑채 누마루의 바닥 크기 비례를 보면 조산을 향한 가로면이 큰 경우가 2채, 가로·세로면이 비슷한 경우가 2채로 나타난다.

누마루와 사랑마당의 관계를 보면 가로면이 큰 무침당과 관가정의 경우 조산을 바라보는 면이 장변을 이루고 사랑마당과 접하는 면이 단변을 이룬다. 가로·세로면이 비슷한 서백당과 묵와고가의 경우에는 사랑마당과 조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고 단변을 이룬다. 즉, 구릉지형의 경우 좌향과 상관없이 사랑마당과 접하는 누마루의 면이 단변을 이루고 입면유형은 서백당은 전면개방이며 다른 가옥들은 일부 창호형식으로 나타난다.

일부 구릉지형의 경우 사랑마당이 주조망의 대상이 아니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단변이 조산의 조망과 사랑마당과 접한 서백당과 묵와고가의 경우는 접객 이외의 다른 기능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Table 6] Hill-type, the proportion of Sarangchae Numaru's floor

가옥명	가로면(D1)			세로면(D2)		
	크기 (m)	칸수	입면 유형	크기 (m)	칸수	입면 유형
서백당	2.8	1	개방	2.93	1	개방
무침당	4.97	2	개방	3.0	1	창호
관가정	5.1	2	개방	3.1	1	창호
묵와고가	4.4	2	창호	4.7	2	개방

3.1.2 평지형

사랑채 누마루 바닥 크기 비례를 보면 가로면이 큰 경우가 3채. 가로·세로면이 비슷한 경우가 1채, 세로면이 큰 경우가 2채로 좌향 방향과 직교하는 바닥면이 크게 형성된 채가 나란한 채보다 많이 나타난다.

누마루와 사랑마당의 관계를 보면 화기리인동장씨종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랑마당과 접하는 면이 장변을 이루고 있어서 구릉지형에 비해 누마루 장변이 사랑마당과 접하는 채가 많이 나타난다. 가로면의 입면유형을 보면 창호형식 2채, 개방형식 4채로 개방형식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평지형의 경우 사랑마당을 조망의 대상으로 구성하면서 구릉지형과 달리 사랑마당과 접하는 누마루 면이 장변을 이루며 개방된 입면을 형성한다. 누마루 세로면이 장변으로 사랑마당과 접한 윤경남선생가옥의 경우에는 누마루 기능이 생활만으로 사용된다.

[Table 7] Flatland-type, the proportion of Sarangchae Numaru's floor

가옥명	가로면(D1)			세로면(D2)		
	크기 (m)	칸수	입면 유형	크기 (m)	칸수	입면 유형
경류정종택	7.7	3	개방	1.3	1	창호
안동임청각	6.5	2	창호	6.2	2	창호
화기리인동장씨종택	2.5	1	개방	4.4	2	창호
예안이씨충효당	3.6	1.5	개방	2.9	1	창호
윤경남선생가옥	2.5	1	창호	4.8	2	개방
예천권씨초간종택	7.5	3	개방	5.9	2	창호

3.2 사랑마당의 유형분포와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의 관계

사랑채를 중심으로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랑마당을 흠마당으로 유지하거나 화계 등으로 내부정원을 꾸미며, 담이나 행랑채 같은 경계요소로 사랑채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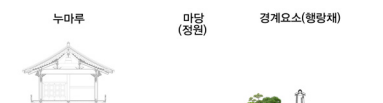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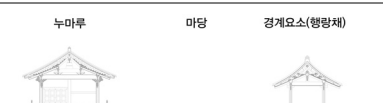
사랑마당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보면 표8과 같이 사랑마당을 담장으로 구획하여 약간 개방적인 기본형, 사랑마당 안에 화계를 만든 화계형, 행랑채 등으로 구획해서 외부와 차단된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9의 입지별 가옥의 사랑마당 유형을 구릉지형의 경우 기본형 3채, 화계형 1채이며, 평지형의 경우 기본형 3채, 화계형 3채로 나타난다. 구릉지형의 경우 16세기까지는 기본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랑채와 마당만으로 이루어진 기본형에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채 공간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랑채 공간이 확장되고 사랑마당 안에 화계를 꾸민다. 그리고 영남지방의 현재 유구에서는 1640년대에

건립된 이우당종택부터 폐쇄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사랑마당의 유형은 15~16세기의 조선시대 초기와는 다르게 후대에는 화계형, 폐쇄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랑마당의 공간 활용이 늘어나면서 보다 외관의 규모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Table 8] Types of Sarang Madang

명칭	유형		
기본형	누마루	마당	경계요소(담)
			
누마루와 경계요소인 담 사이에 마당을 비워둔 경우			
화계형	누마루	마당 (정원)	경계요소(행랑채)
			
누마루와 경계요소인 담 사이에 화계를 둔 경우			
폐쇄형	누마루	마당	경계요소(행랑채)
			
누마루와 경계요소가 담이 아니라 행랑채등으로 되어 있으며 마당이 형성된 경우			

[Table 9] Types of Sarang Madang for survey houses

위치	가옥명	유형	건립연대
구릉지	서백당	기본형	1450년대
	무침당	화계형	1514년대
	관가정	기본형	1540년대
	묵와고가	기본형	1568년대
평지	경류정종택	기본형	1500년대
	안동 임정각	화계형	1500년대
	화기리인동장씨종택	기본형	1540년대
	안동예안이씨종가	화계형	1550년대
	윤경남선생가옥	기본형	1550년대
	예천권씨초간종택	화계형	1590년대

표9의 사랑채 누마루 유형과 사랑마당의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청형 누마루공간은 전부 화계형으로 되어 있고 측면돌출형은 전부 기본형으로 나타난다.

3.3 사랑마당 유형 및 경계요소에 따른 외부 차경과의 관계[4]

사랑채 누마루에서 조산 방향의 외부차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조산방향의 사랑채 누마루 단면을 현장조사를 통해 누마루높이(h)와 좌식 눈높이(h+70cm) 그리고 누마루 입면에서 경계요소까지의 거리(D), 경계요소의 높이(H)등을 파악하고 누마루에 앉아서 보이는 눈높이에서 외부차경 상태를 파악하여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와 외부 차경과의 시각적 관계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Table 10] Schematic of the boundary element



3.3.1 구릉지형

구릉지형 사랑마당의 경계요소를 보면 표11과 같이 기본형의 누마루 높이는 2m정도이고 화계형의 경우 1.97m로 유사하게 형성된다. 경계요소의 높이는 기본형은 1.26~1.6m 정도이고 화계형은 1.4m이다.

이는 구릉지형의 경우 진입부분의 경사에 의해 사람의 시선보다 낮은 높이에 형성되어도 외부시선을 차단할 수 있고 누마루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선이 용이하도록 형성되기 때문이다. 누마루의 높이가 사람시선보다 높게 형성된 부분은 신분의 위계를 형성하기 위해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Table 11] Hill-type, distance and height of boundary element

가옥명	사랑마당의 유형	경계요소		
		h(m)	D(m)	H(m)
서백당	기본형	2.00	17	1.6
무침당	화계형	1.97	7	1.4
관가정	기본형	2.06	5	1.26
묵와고가	기본형	2.11	5	1.4

누마루높이와 경계요소에 따른 조산방향의 외부차경을 보면 사랑마당이 대부분 누마루 평면의 단면이 위치하고 서백당을 제외하면 경계요소까지 5~7m정도로 사랑마당이 평지형에 비해 작게 형성되는데 이는 구릉지형

의 경우 평지형과 달리 주 사랑마당의 위치가 조산과 다른 방향에 설정되고 사랑마당이 생활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랑채 누마루에서는 조산을 외부차경하면서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화계형의 경우에도 내부화계를 두더라도 누마루가 화계의 높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외부차경을 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부분 또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릉지형의 경우 사랑마당의 차경보다는 외부차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장변이 조산을 향하고 동시에 주 사랑마당과 접하는 서백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계요소까지의 거리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Hill-type, boundary elements and external borrowed landscape

	서백당	관가정
경계요소		
외부차경		
	무침당	묵와고가
경계요소		
외부차경		

3.3.2 평지형

평지형의 경우 사랑마당과 경계요소를 보면 표13과 같이 기본형은 구릉지형의 누마루 높이와 비슷한 2m내 외이고, 화계형은 안동예안씨종가를 제외하면 기본형과 비슷한 2m내외로 형성된다. 경계요소의 높이를 보면 기본형의 경우 1.3~1.6m이고 화계형의 경우 1.5~1.8m이며 경류정종택, 예천권씨초간종택의 경우에는 경계요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경계요소는 구릉지형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데 이는 진입하는 부분이 평지이기 시선을 조금 더 높여야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0.2m가량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누마루 높이가 구릉지형과 유사한 것은 신분의

위계형성뿐만 아니라 경계요소와의 거리가 넓어서 외부로의 시선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Table 13] Flatland-type, distance and height of boundary element

가옥명	사랑마당의 유형	경계요소		
		h(m)	D(m)	H(m)
경류정종택	기본형	2.1	.	.
안동임청각	화계형	1.93	11	1.5
화기리 인동장씨종택	기본형	2.08	13	1.6
안동 예안이씨종가	화계형	1.02	12	1.8
윤경남 선생가옥	기본형	1.89	4.9	1.3
예천권씨 초간종택	화계형	2.02	.	.

[Table 14] Flatland-type, boundary elements and external borrowed landscape

	경류정종택	안동임청각
외부차경		
경계요소		
	화기리 인동장씨종택	안동예안이씨종가
외부차경		
경계요소		
	윤경남선생가옥	예천권씨 초간종택
외부차경		
경계요소		

누마루높이와 경계요소에 따른 조산 방향의 외부차경을 보면 누마루의 높이는 구릉지형과 유사하게 2m내외로 형성하고 있지만 경계요소와의 거리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전면공간에 사랑마당이 형성되어 확장이 어려운 윤경남 선생 가옥을 제외하면 대부분 10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사랑마당을 조망하면서도 외부차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사랑마당 유형 중 화계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구릉지형은 화계의 높이가 누마루 높이보다 낮게 형성되어 사랑채 누마루에서 외부차경이 용이한데 반해 평지형은 사랑마당에 정원이 형성되고 이 화계가 사랑채 누마루의 외부차경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평지형은 사랑마당을 구릉지형에 비해 조망대상으로 활용하고 사랑마당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내부정원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4. 결론

사랑채 누마루 유형을 보면 입지와 상관없이 초기에는 사랑채에 부설되기 쉬운 부속형이나 측면돌출형이 많이 나타나며, 정면돌출형이나 대청형의 경우도 방과 바로 접

합하여 누마루 접합 기술의 부족으로 부설이 용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누마루의 기능은 구릉지형의 경우 누마루에서 기능이 접객이 주를 이루는데 반해 평지형의 경우 별도로 건립된 대청 및 별동형 누정이 접객 기능을 분담하고 누마루에서는 생활용도의 기능으로 주로 활용된다. 누마루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구릉지형이 평지형보다 작은 편이며, 대청형 누마루공간이 다른 형과 비교하여 가장 크다. 또한 사랑채 누마루가 생활과 복합적인 활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누마루 면적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지별 사랑채 누마루와 사랑마당 및 외부차경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첫째, 구릉지형은 사랑마당이 조망의 대상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누마루의 가로면이 장변인 경우 조산을 조망하며, 사랑마당과 접하는 면은 단변을 이룬다. 평지형은 사랑마당이 조망의 대상으로 형성되면서 사랑마당과 접하는 누마루 면이 대부분의 경우 장변을 이루며 개방된 입면을 형성한다.

둘째, 사랑마당의 유형은 16세기가 지날수록 기본형보다 화계형과 폐쇄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보다 가옥 규모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채 누마루 유형과 사랑마당의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입지와 상관없이 대청형 누마루공간은 화계형

[Table 15] Table of comprehensive analysis

위치	가옥명	건립 연대	누마루 유형	누마루 기능	누마루 면적 (m ²)	사랑마당의 유형	누마루 가로면			누마루 세로면			경계요소		
							크기 (m)	칸 수	입면 유형	크기 (m)	칸 수	입면 유형	h (m)	D (m)	H (m)
구릉지	서백당	1450년대	부속형 누마루형	의례, 접객	8.43	기본형	2.8	1	개방	2.93	1	개방	2.00	17	1.6
	무첨당	1514년대	정면돌출 누마루형	접객	15.57	화계형	4.97	2	개방	3.0	1	창호	1.97	7	1.4
	관가정	1540년대	측면돌출 누마루형	접객	8.65	기본형	5.1	2	개방	3.1	1	창호	2.06	5	1.26
	묵와고가	1568년대	정면돌출 누마루형	의례, 접객, 생활	21.84	기본형	4.4	2	창호	4.7	2	개방	2.11	5	1.4
평지	경류정 종택	1500년대	부속형 누마루형	의례, 생활	10.1	기본형	7.7	3	개방	1.3	1	창호	2.1	·	·
	안동 임철각	1500년대	대청형 누마루형	의례, 생활	40.3	화계형	6.5	2	창호	6.2	2	창호	1.93	11	1.5
	화기리 인동장씨 종택	1540년대	측면돌출 누마루형	의례, 생활	18.94	기본형	2.5	1	개방	4.4	2	창호	2.08	13	1.6
	안동예안 이씨종가	1550년대	부속형 누마루형	의례, 생활	34.75	화계형	3.6	1.5	개방	2.9	1	창호	1.02	12	1.8
	윤경남선생 가옥	1550년대	정면돌출 누마루형	생활	15.02	기본형	2.5	1	창호	4.8	2	개방	1.89	4.9	1.3
	예천권씨 초간종택	1590년대	대청형 누마루형	의례, 생활, 접객	43.83	화계형	7.5	3	개방	5.9	2	창호	2.02	·	·

이고 측면돌출형은 기본형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계요소에 따른 조산 방향의 외부차경의 관계를 보면 구릉지형의 경우 서백당을 제외하면 조산방향으로 5~7m정도의 사랑마당이 형성되고 평지형의 경우 윤경남 선생가옥을 제외하면 대부분 10m이상의 사랑마당이 형성된다. 또한 조산방향의 차경을 보면 구릉지형은 조산을 외부차경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평지형은 사랑마당을 조망대상으로 활용하고 사랑마당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내부정원을 형성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References

- [1] Kim, So-Min, Yoon, Chae-Shin,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Numaru built on the Upper-Class Houses in Chosun Dynasty",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7, No. 1, October, 2007.
- [2] Youn, Il-E, *A Study 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Sarang-Chae of the Upper-class House in the late Chosun Dynasty*,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9
- [3] Yang, Moon-ee, *Development process of Numaru in connection with enlargement of sarangche in traditional higher-classes house in chosun dynasty*, pp. 33~35,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4] Sagong, Yeung Bo,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terior Space in 'Roo-maru' of Korean gentry house in Chosun Dynasty*, pp. 57~59,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02

신 문 기(Moon-Ki Shin)

[정회원]



- 1988년 4월 : 프랑스 파리 건축 4대학 (건축학석사C.E.A.A.)
- 1994년 10월 :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공간론, 건축역사 및 의장

김 영 현(Kim-Young Hyun)

[정회원]



- 2010년 2월 : 호서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건축학학사)
- 2012년 8월 :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건축학석사)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전통건축